



신지애가 3일 오전 빛고을CC에서 열린 신지애골프아카데미 MOU 체결 기념라운딩에서 샷을 한 후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 골프여제 고향서 '보은의 라운딩'

(신지애)

최영주·오형철씨 등 어릴적 후원자들과 함께
광주시와 '신지애 골프 아카데미' MOU 체결

'골프여제' 신지애가 3일 광주를 '깜짝 방문'했다.

지난 2일 일본에서 열린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밤 12시에 귀국한 신지애가 이날 오전 8시 광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빛고을 CC에 아버지 신재섭씨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시와 '신지애골프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앞두고 기념라운딩을 위해서 새벽부터 서울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내려 온 것이다. 특히 이날은 라이벌 오초야를 제치고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날이어서 그의 고향 방문은 더욱 값지고 의미있었다.

검은색 바지에 보라색 조끼 차림의 신지애는 하룻밤새 일본에서 광주까지의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없이 입가에 특유의 미소를 띄우며 환영객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라운딩은 신지애로선 '보은의 라운딩'이기도 했다. 아버지 신재섭씨를 비롯해

신지애가 어렵게 운동했던 어렸을 때 그를 후원해주었던 아버지 친구들인 최영주·오형철씨와 함께 했다.

특히 신지애가 초등학교 시절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던 최영주씨는 당시 마땅히 연습할 곳이 없었던 어린 신지애에게 아무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하도록 무료로 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이다.

또 오형철씨는 신지애 고교선수 시절에 자신이 새로 구입한 골프클럽 한 세트를 아무 조건없이 선물로 건넸었다. 당시 신지애는 오형철씨에게 '이 골프클럽을 내게 주면 나중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골프클럽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한다.

신지애는 이날 기념라운딩에서도 '여제'다운 신들린 샷을 보여줬다.

첫번째 파4 홀에서 신지애는 두번째 샷을 하거던 맞바람이 불자 캐디가 가져온 6·7번 아이언을 풀리치고 5번 아이언을 잡았다. 두 번째 샷은 홀로 부터 약 15m 거리의 그린에



신지애(왼쪽에서 다섯번째)는 3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네번째)과 신지애골프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에 떨어졌다. 신지애는 마치 LPGA 무대에 선 듯 신중하게 어프로치 샷을 날렸다. 볼은 홀에 빨려들어가듯 구르다 정확하게 홀인, 버디를 잡았다.

'골프여제'의 퍼팅을 볼 수 없게된 갤러리들은 팬서비스로 퍼팅을 부탁했다. 약 7m 떨어진 곳에서 볼을 놓고 퍼팅 자세를 취한 신지애는 다시 신중하게 홀을 주시했다. 그의 퍼팅을 떠난 볼은 그대로 홀컵에 들어갔다.

4홀을 라운딩한 신지애는 3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다.

기념라운딩을 마친 신지애는 이날 바로

광주시청으로 옮겨 박광태 광주시장과 골프아카데미 설립 MOU를 체결했다. 신지애 골프아카데미는 2012년까지 704억원을 들여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설립된다.

골프아카데미에는 LPGA 기념관과 체력단련실·소프트 게임장·스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광주 행사를 마치고 오후 4시 비행기로 상경한 신지애는 4일 오전 10시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신지애의 광주 방문은 지난 2월 샷 조절을 위해 답양 가산골프랜드를 찾은지 2개월만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꿈나무들에게 희망 심어주는 골프요람 됐으면...”

고향은 신지애 광주일보 단독인터뷰

“골프아카데미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목표였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루게 됐다. 골프주니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골프요람이 되길 바란다.”

신지애는 3일 오전 '신지애 골프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광주시와 MOU 체결을 앞두고 빛고을 CC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골프아카데미의 교훈(?)은 무엇으로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신지애는 “별써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어린 선수들에게 운동보다 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격 형성에 더 주력하

겠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선 기술도 중요하지만 평소 예의바른 행동과 마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렸을 때 어렵게 운동했던 점을 잊을 수 없다는 신지애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어린 선수들이 골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신지애는 “실감이 나지 않고 멍한 느낌이다. 세계랭킹 1위가 된다는 것은 그 수많은 훌륭한 골프선수들의 이름 앞에 '신지애'라는 이름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

는 것인지 알고 있기에 더욱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목표에 대해서 “매년 몇 승하겠다는 얘기는 적은 없었다. 출전 대회마다 경기에 전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직접적인 답은 피했다. 그는 또 현재 샷 감각에 대해서도 “시즌 초반에 스틸 샷프트를 쓰다가 그라파이트로 바꿨다. 이전 감각을 다시 되찾고 있다”면서 “지난 겨울 동계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워온 게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0년간 운동하겠다고 말했던 그는 라이벌 오초야의 은퇴 소식을 들은 순간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신지애는 “그녀의 마지막 대화를 같이 하

지못해 아쉬웠다”며 “선수가 정상에 서있을 때 운동을 그만두는 것은 정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선수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골프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에 타이거 우즈와 함께 선정돼 시상식에 나란히 있던 신지애는 “타이거 우즈를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오지 '신기했다'는 느낌 밖에 없었다”면서 “이날 우즈의 격려의 말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당시의 감동을 밝혔다.

신지애는 고향 팬들에 대해 “끝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는 것에 대해 오직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생각이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2군경기를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은 KIA 출신의 상무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형·진해수·박진영·이호신·임준혁.

군대간 호랑이들 친정 나들이

군복무로 광주를 떠난 '반가운 얼굴'들이 친정을 찾았다.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KIA 타이거즈 출신의 내야수 김주형·박진영, 외야수 이호신, 투수 임준혁·진해수(개별 전 진 민호)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KIA 2군과의 경기를 위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집을 풀었다.

상무 야구단 유니폼을 입고 홈그라운드를 찾은 이들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옛 동료들과 회포를 풀었다.

부대에 머무르려 선수단과 함께 하지 못한 투수 김성계를 포함해 상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KIA 출신은 모두 6명. 이번 친정을 찾은 5명 중 오는 10월30일 제대를 앞두고 있는 김주형을 제외하고는 이제 막 이병 계급장을 단 신병들이다.

제 2의 야구 인생을 꿈꾸고 있는 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내년 당장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김주형이다.

2004년 1차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주형은 차세대 거포로 주목을 받았지만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군복무를 선택했다. KIA 2군과의 주말 3연전 내내 3번을 맡은 김주형은 14타수 5안타 0.357의 타율을 기록했다. 1일에는 이대진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올 시즌 4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시험을 받았던 임준혁도 상무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2군 5경기에서 등판한 임준혁은 1.43의 방어율로 3승을 수확하고 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5월 대반격 지켜봐!

이용규·최희섭부활... 타선 상승세로 새 출발
한화·LG 상대 선발진 활약따라 상위권 도약

타선의 상승세가 5월 대반격을 주도한다. '잔인한 4월'을 보낸 KIA 타이거즈가 잠에서 깨어난 방망이를 앞세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KIA는 주중 한화를 홈으로 불러들여 시즌 첫 대결을 갖는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올 시즌 2패를 안겨준 LG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다.

주중 SK에게 두 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했던 KIA는 주말 3연전에서 장단 39안타로 27점을 뽑아내며 롯데에게 분풀이를 했다.

극심한 타격부진으로 4월 한 달 어려운 행보를 이어왔던 KIA에게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은 5월 대반격을 예고하는 경기였다. 특히 이용규의 부활 조짐은 KIA에게는 천군만마다.

전지훈련 당시 타격폼을 수정했던 이용규는 시즌 개막 후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장타를 의식하고 타격폼에 변화를 줬지만 몸에

제대로 익지 않으면서 타석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부동의 테이블 세터인 김원섭까지 기복을 보이면서 중심타선의 부담이 더해져 KIA의 타선은 동반침체에 빠졌다.

지난주 삭발을 감행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 이용규는 타석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타를 버린 이용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팀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 2일 경기에서 도루 실패가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타석에서 2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는 등 이용규를 필두로 KIA는 주말 3경기에서 6개의 도루를 추가, 숨죽이고 있던 기동력도 꿈틀대고 있다.

발 빠른 이용규의 움직임이 살아난다면 갑작은 최희섭이 중심에 버티고 있는 타선은 더욱 탄탄한 짜임새를 갖추게 된다.

문제는 마운드가. 5월 대반격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상병들의 복귀

시점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5월초 합류를 예상했던 신용운의 움직임이 더디다. 어깨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신용운은 마운드 공백이 길어지면서 아직 투구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중인 라이트의 거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나마 기흥으로 재활을 해왔던 이대진이 1일 상무와의 2군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며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속을 끌어 올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이대진의 복귀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선발진 전력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발 로테이션 운영이 복잡하게 됐다. 유원상과 첫 대결을 갖는 윤석민을 비롯해 전태현-서재용-양현중-로페즈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요일을 책임질 투수가 마땅치 않다. 여기에 미완의 대기 전태현이 아직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선발진들의 표정에 따라 이번 주 KIA의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용규)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23	5	0	0.821	15승
2	두산	17	9	1	0.630	2패
3	삼성	17	12	0	0.586	4승
4	LG	12	13	1	0.462	4패
5	KIA	12	16	0	0.429	1패
6	롯데	12	18	0	0.400	1승
7	넥센	10	19	0	0.345	2승
8	한화	9	20	0	0.310	7패